

이 보도자료는 2023. 11. 20.(월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<p><b>경찰</b></p>		<p><b>보도자료</b> 2023. 11. 20.(월)</p>
<p><b>춘천지방검찰청</b> <b>영월지청</b> 전문공보관 지청장 송준구 전화 033-371-4301</p>	<p><b>강원평창경찰서</b> 공보담당자 경감 조상현 전화 033-339-5265 경감 박잔영 전화 033-339-5267</p>	
<p><b>제 목</b></p>	<p><b>검·경 협력으로 대규모 마약류 밀수조직 일망타진</b> - 영월지청·평창경찰서 협력수사로 시가 600억원 상당 마약류 (60만명 동시 투약분) 밀수한 일당 27명 검거하여 기소(20명 구속)</p>	

**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**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(제11조 제2항 제1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춘천지검 영월지청(지청장 송준구)과 강원평창경찰서(서장 김충우)는 협력수사를 통해,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 원 상당의 케타민, 코카인 등 마약류 30kg(60만 명 동시 투약분)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한국인 마약밀수조직과 위 조직이 밀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인수,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조직의 핵심 조직원 등 총 27명을 검거하여 20명을 구속기소하고, 7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.
- 검·경은 밀수입·유통에 직접 가담한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\*을 적극 적용하고,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 범죄집단가입·활동죄를 적용하였습니다.

<\*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>

- ▶ 5000만원/500만원 이상 마약류 밀수입 : 무기 또는 10년 / 7년 이상 징역
- ▶ 5000만원/500만원 이상 마약류 매매 : 무기 또는 7년 / 3년 이상 징역

- 뿐만 아니라,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3.07kg, 코카인 211g, 필로폰 160g 등 시가 102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약 3.4kg(7만 명 동시 투약분)과 마약류 판매대금 현금 3,500만 원을 압수하고, 1억 7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·추징 보전하였습니다.

- 검·경은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수사상황·자료를 공유하고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였고, 이로써 조직원 27명을 신속히 검거하여 조직적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.
-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마약류 밀수조직의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 중이고, 국내 유통조직 및 매수자 등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.

## 1 피고인

	피고인	역할	국적
밀수조직 (총 23명)	B (남, 29세), C (남, 34세)	관리책 (운반책 인솔해 입국)	한국
	D (여, 37세), E (남, 24세)	모집책 (운반책 모집)	
	F (남, 32세), G (여, 35세), H (남, 28세), I (여, 23세), J (남, 37세), K (남, 25세), L (여, 26세), M (여, 27세), N (남, 23세), O (남, 23세), P (남, 24세), Q (남, 27세), R (남, 28세), S (남, 19세), T (여, 19세), U (여, 29세), V (남, 30세), W (여, 31세) <18명>	운반책 (일명 '지게꾼')	
	X (남, 34)	판매책 (마약판매)	
유통조직 (총 3명)	甲 (남, 30세)	유통 총책	
	乙 (남, 32세), 丙 (남, 25세)	유통 조직원	
매수·투약자 (총 1명)	丁 (남, 39세)		

## 2 범죄사실

### ● B 등 23명 (마약 밀수 조직)

- 총책 A(태국 체류, 미검)와 공모하여, '22. 9. ~ '23. 7. 총 30회에 걸쳐 케타민 27kg, 코카인 300g, 필로폰 160g, 엑스터시 1,090정 등을 밀수하고 A가 조직한 범죄집단으로 가입·활동 [특가법위반(향정), 특가법위반(마약), 범죄단체가입·활동]

### ● 甲, 乙, 丙 (유통조직)

- '23. 3. ~ 7. 밀수조직원 B, X로부터 케타민 합계 3kg, 엑스터시 합계 400정을 매수 [특가법위반(향정)]

### 3

## 구체적인 수사 경과

-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범죄 근절 계획에 따른 집중단속 중 이들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, '23.7. 중순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핵심 조직원 B, C, D, F, G 등 5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.
- 이들 조직은 경기 안산지역 선후배 관계로, 태국으로 출국해 총책, 자금책, 모집책, 관리책, 운반책,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, 조직 탈퇴 시 보복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현지 마약 판매 조직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매입한 후, 텔레그램 등에 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마약류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총책 A와 관리책 B, C는 운반책들로 하여금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하고 항공편을 이용,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도록 하고, 관리책 B, C는 운반책과 밀착 동행하며 마약류를 안전하게 건네받을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- 검·경은 이들이 밀수한 마약류를 왕십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통 조직에 넘긴 사실을 포착, 왕십리 부근에서 수십일 동안 잠복한 끝에 국내 유통조직의 유통총책 甲 등을 검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.
- 이들 조직은,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소매상에게 마약을 유통, 위 소매상은 클럽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※ 이들 조직이 주로 밀수입한 '케타민'은 MZ세대에서 일명 '케이' 또는 '클럽 마약'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환각 작용이 강해 클럽 등에서 불법 유통

## 4

# 수사결과 및 의의

### ▣ 조직적 마약류 밀수 범행 엄단

- 검·경은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하여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, 특히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방법 및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죄까지 의율하여 엄단하였습니다.
- 이 사건 밀수조직은 ① 범행 전반을 총괄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총책, ② 마약류 매수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책, ③ 마약류를 운반책들의 신체에 은닉하고 인솔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마약류를 수거하여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관리책, ④ 운반책을 모집해 태국으로 출국시키는 모집책, ⑤ 마약류를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운반책, ⑥ 국내에서 마약류를 받아서 국내에 판매하고 대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,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왔습니다.
-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고, 수사기관의 적발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한 내부규칙을 갖추고 공모관계를 숨겼습니다.

#### 【조직원들의 역할별 수당 및 내부 규칙】

##### ▪ 각 가담역할별 범죄수익 분배

- (운반책) 밀수 건당 500 ~ 300만원 (관리책) 월급 500만원 및 밀수 건당 100만원 이상 (모집책) 운반책 1명 모집 시 50만원 (판매책) 밀수 마약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

##### ▪ 조직 내부 규칙

- ① 범행관련 대화는 텔레그램 사용, ② 조직원들끼리 상호 익명 사용, ③ 수사기관 적발시 서로 모른다고 진술

- 영월지청은 사건 송치 후 휴대전화 전자정보·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밀수조직이 '범죄집단'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를 추가 확보하였고, 이들이 케타민 뿐 아니라 코카인과 엑스터시까지 대량 밀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

다.

## ▣ **검·경이 수사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**

-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수사 초기부터 **수사협의회**를 개최하고 수시로 수사상황·자료를 공유하며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등, **4개월에 걸친 긴밀한 협력**을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.
  - 공동 수사계획을 수립하여, 평창경찰서는 밀수조직원 검거 및 유통조직 추적, 영월지청은 증거관계 보강 및 범죄집단 범리 검토 등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.
- 평창경찰서는 최초 입수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**밀수조직원들과 유통조직원들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순차 검거**하였고, 그 결과 단기간에 핵심 조직원들을 대부분 검거하여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었습니다.
  - 조직원들이 공모관계를 숨겨 자칫 소수의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, 담당 경찰관들의 신속한 수사로 적시에 공범들을 특정하여 검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
  - 유통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추적이 어려울 수 있었으나, 수십일에 걸친 잠복수사 등으로 이들까지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.
- 영월지청은 역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, 이 사건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경찰을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.
  - 영월지청 마약전담검사가 인천공항세관에 경찰의 체포·압수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한편, 수사 초기부터 담당 경찰관과 수시로 연락하여 증거관계를 보강하였으며,
  -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

하여 혐의 입증 및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, 검·경이 구속영장 청구한 피의자 전원이 구속되었습니다.

- 위와 같이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마약범죄 단속에 관하여 검·경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협력하여 대규모 마약류 밀수조직을 엄단할 수 있었습니다.

## 5

### 향후계획

- 검찰과 경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 밀수·유통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과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마약 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